



EDUCATION STRATEGY21

2020
여름 소식지



청소년교육전략21이 지금까지 만난 청소년 1,291,666명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청소년교육전략21에 많은 응원을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청소년교육전략21과 7개 산하기관이 만난
청소년의 성장 이야기로 그 응원에 답해드립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 사당청소년문화의집 / 도봉교육복지센터 /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STORY 1

장학금 받았다! 예스!!

사)청소년교육전략21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YES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YES 장학금은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청소년의 직업훈련 교육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YES21

법인은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으로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TORY 2

우리들의 안전한 랜선만남

때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끄럽던 그때
도봉구 청소년 활동은 멈춰버렸고, 우린 처음 만났습니다.
랜선만남으로요!

"화상회의"라니! 4차 산업 시대를 이끌 핵심 리더가 된 거 같고
당장 실리콘 밸리로 출근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

우리는 따스한 4월의 한 토요일 낮에 각자의 방 모니터에 모였다.

모두가 처음 모인 어색한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운을 떼셨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그렇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인연을 시작한다. 아직 안정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간다.

내일로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 도봉구청소년참여위원회 화상회의 후기

”

사회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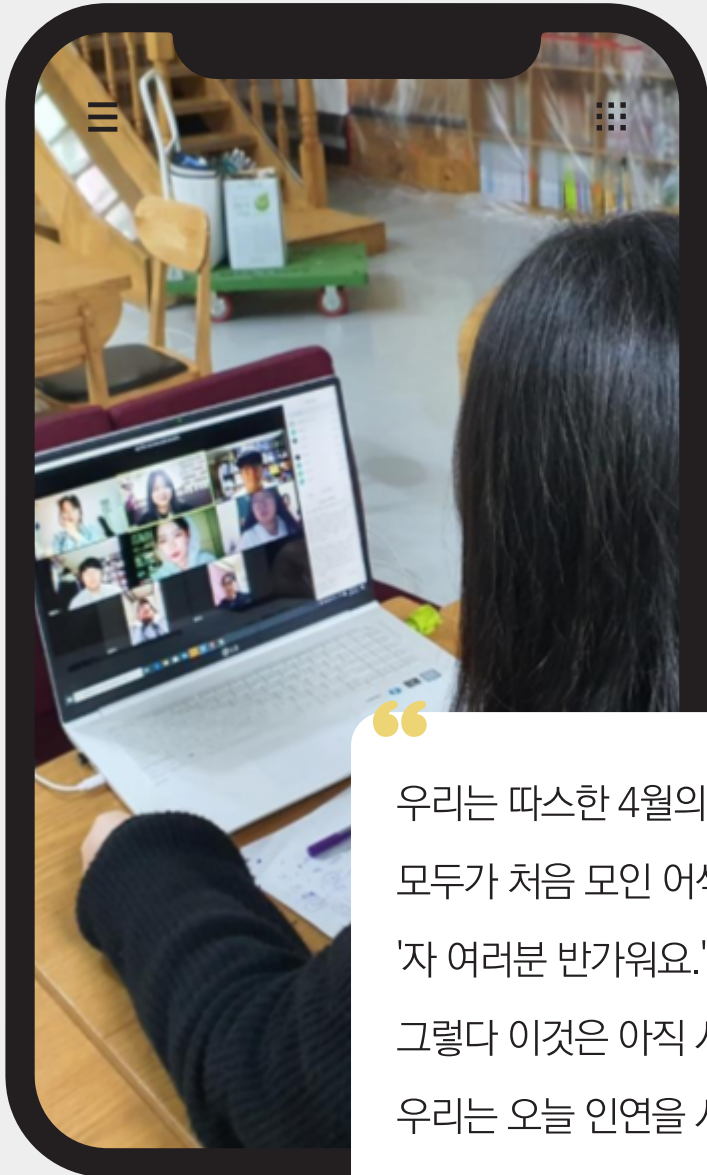
직접 만나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하던 시간이 그리긴 하지만!

위에 적힌 한 청소년의 후기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청소년은 스스로 안정을 찾고, 희망을 봅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더 안정된 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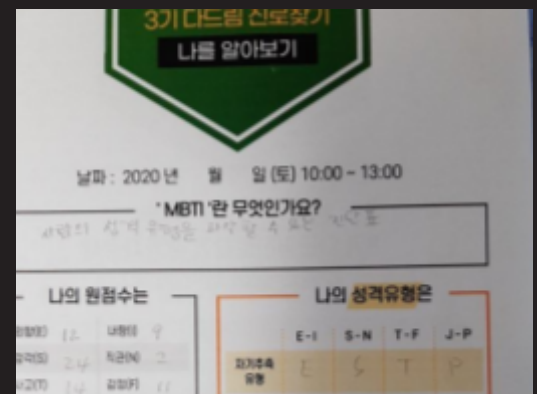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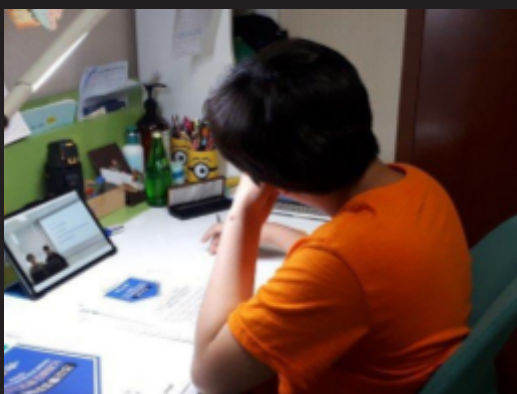
STORY 3



다드림 진로찾기 3기 START!

코로나19사태로 4/11(토) 첫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던 입학식!
어떻게든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
5/16(토)에서야 온라인 첫 수업이 START 되었습니다.

다 드림 진로 찾기는 중앙대학교 교육봉사동아리 <다빈치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학과 탐색 및 체험, 멘토링을 진행하는 연속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진행이다 보니 멘토님들은 영상 촬영을 열심히!
청소년에게는 아쉽고, 응원하는 마음을 꼭꼭 담은 패키지(활동지, 간식) 배달을!
준비 단단히 하고 만난 첫날, 우리는 입학식과 자기탐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시간 맞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참 예쁘지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빨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길 바라요 :)

STORY 4



교육 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랑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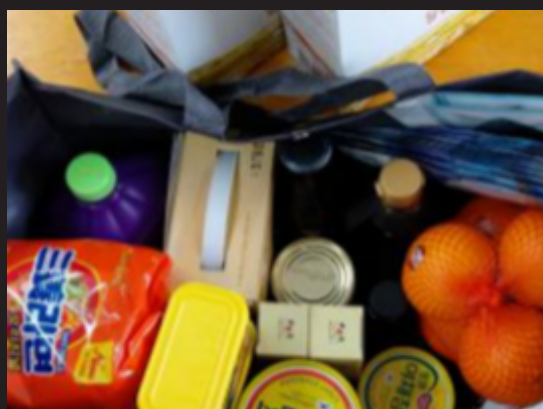
도봉교육복지센터는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 취약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랑함을 도봉구 221명의 청소년에게 전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비가 부족한 가정에는 생필품을,

온라인 학습 기기가 없는 가정에는 PC 용품을!

그 밖에도 교복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문제집 구입비 등

교육 취약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기관과 독지가들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학교, 지역 기관, 독지가들의 후원과 협력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STORY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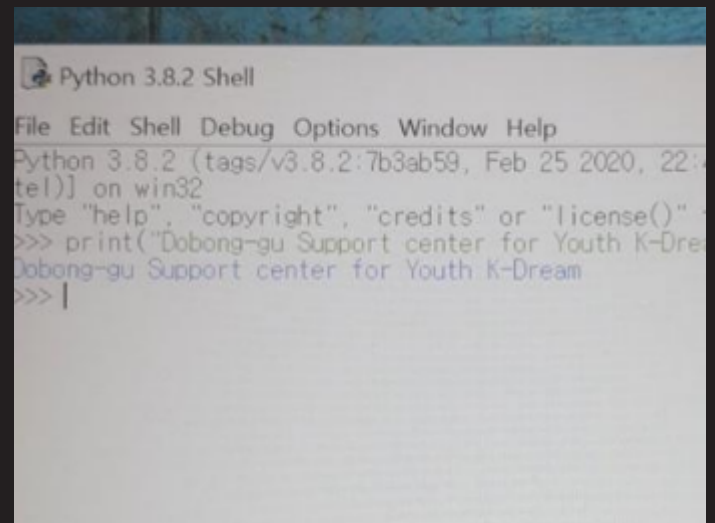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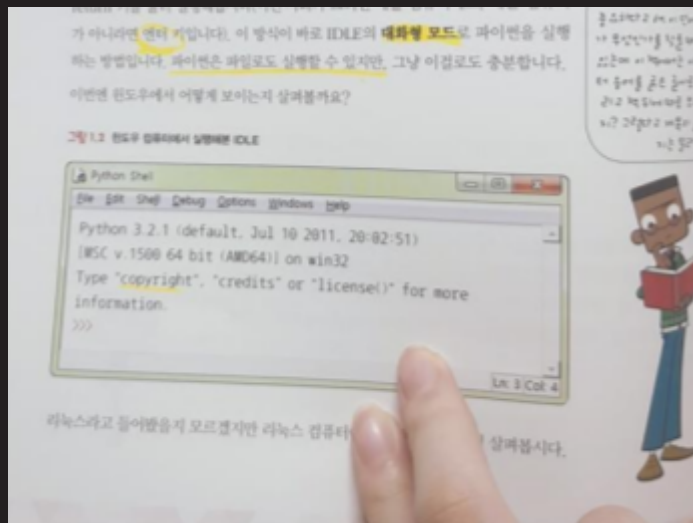
읽고 싶던 책 읽기



나노 블럭 만들기



코딩 책보고 스스로 해보기



사회적 거리 두기 2M, 우리의 성장은 ∞M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면서 도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들은 그동안 못다 한 취미생활과 문화체험을 하며 개별적인 성장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친구들에게 럭키박스 제공 및 문화체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체험과 취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그 중 몇 가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박스&문화체험 후기

“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럭키박스를 통해 받은 나노블럭을 보고
심심하던 차에 재미 삼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쌓여있는 블록들이
줄지 않아 막막했는데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니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보람차게 느껴졌고 다음에
는 더 큰 작품을 만들고 싶다.

”

“

예전에 코딩에 관심이 생겨 혼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터라 코딩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신청하였다. 마구잡이로 코딩하던 전과 달리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니 C코드를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고 파이썬으로
코딩도 시도해볼 수 있었다.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재미까지 느끼는,
자기계발에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기존에 읽고 싶던 소설과 교양 책을 읽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일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청소년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또한 올바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사고를
넓히고 교양·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

STORY 6



사회적 거리에도, 시간적 거리에도 우리 성장은 진행 중!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 중단되었던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이 오는 6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세 달이나 걸렸지만,
여전히 서로를 위한 사회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
회
적
거
리
?
있
니
까
?
우
리
의
성
장
은
진
행
중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 상담실마다 투명 아크릴판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서로를 가로막은 아크릴판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눈빛과 음성을 통해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묘사 사청러를 위한 쌤들의 유튜버 데뷔



▲ 유튜브 검색 :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유스맨

유스맨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 가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청소년과 대면 만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발대식을 하지 못해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궁금하고 그리운 청소년을 위해 어벤저스 사청문 쌤들이 뭉쳤다는데요.

“유스맨” 사청문에 가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추가되니 놀러 오세요!

SPECIAL INTERVIEW



왼쪽_사)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 오른쪽_동작청소년문화의집 고지혜 청소년

여름 소식지 특집,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사)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님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고지혜 위원장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스승편_

사)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님

법인과 인연의 시작

제가 서울시 강남구 의원으로 재직하던 1996년, 강남구 청소년 대책특별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출청소년쉼터를 개설, 강남구 청소년단체 협의회 구성,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학원폭력이 언론의 이슈가 되어 강남YWCA에 학원폭력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윤진 청소년학과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최윤진 교수님께서 청소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최교수님께서 사)청소년교육전략21을 설립하셨고 저에게 등기이사로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법인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이사장 취임 시 다짐

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정적인 자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의미 있는 도전과 변화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 구성원들의 열정, 그리고 역량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재정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법인의 방향성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법인이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되고 자체적인 인원 조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의 도전과 변화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진행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청소년

여럿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은 소위 그들 사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즉 '일짱'이라고 일컬어지는 친구였습니다. 워낙 순발력이 뛰어나고 운동실력이 좋아 '이러한 특기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과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한국 복싱 페더금 前 챔피언을 하였고, 복싱 체육관과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복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한 선지자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름처럼 세상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 중 한 명입니다.

RELIABLE

RESPONSIBLE

RESPECTABLE



청소년과 함께 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

처음에 가출 청소년 및 재소자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들의 삶 보다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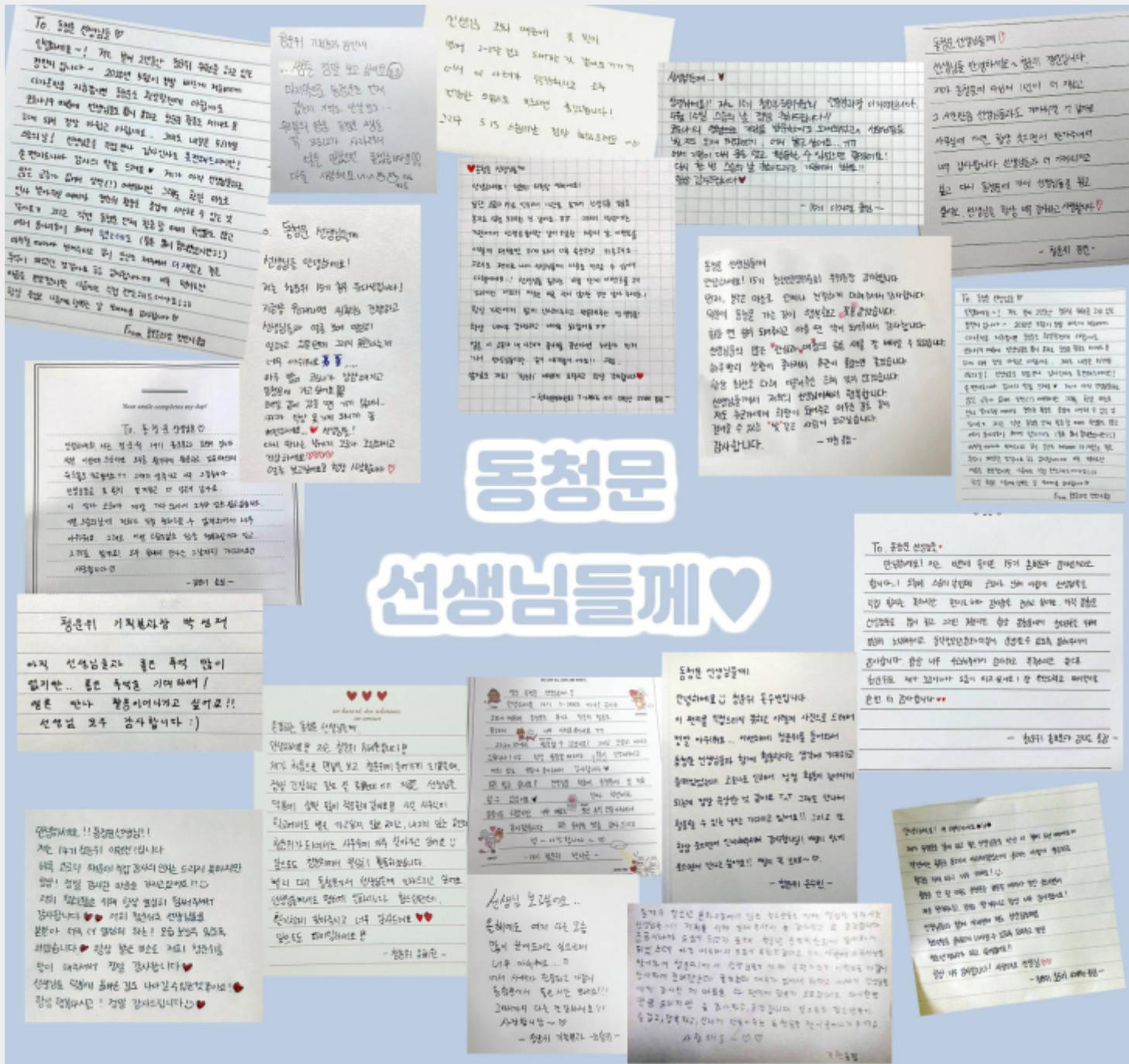
‘낙인’이란 핸디캡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낙인 된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려는 자신감, 각오, 동기부여를 스스로 갖게 만드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몸짓, 눈빛 하나하나가 그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친구들을 간혹 만나지만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기에 그 친구들에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란 OO이다.

스승이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는 스승은 가르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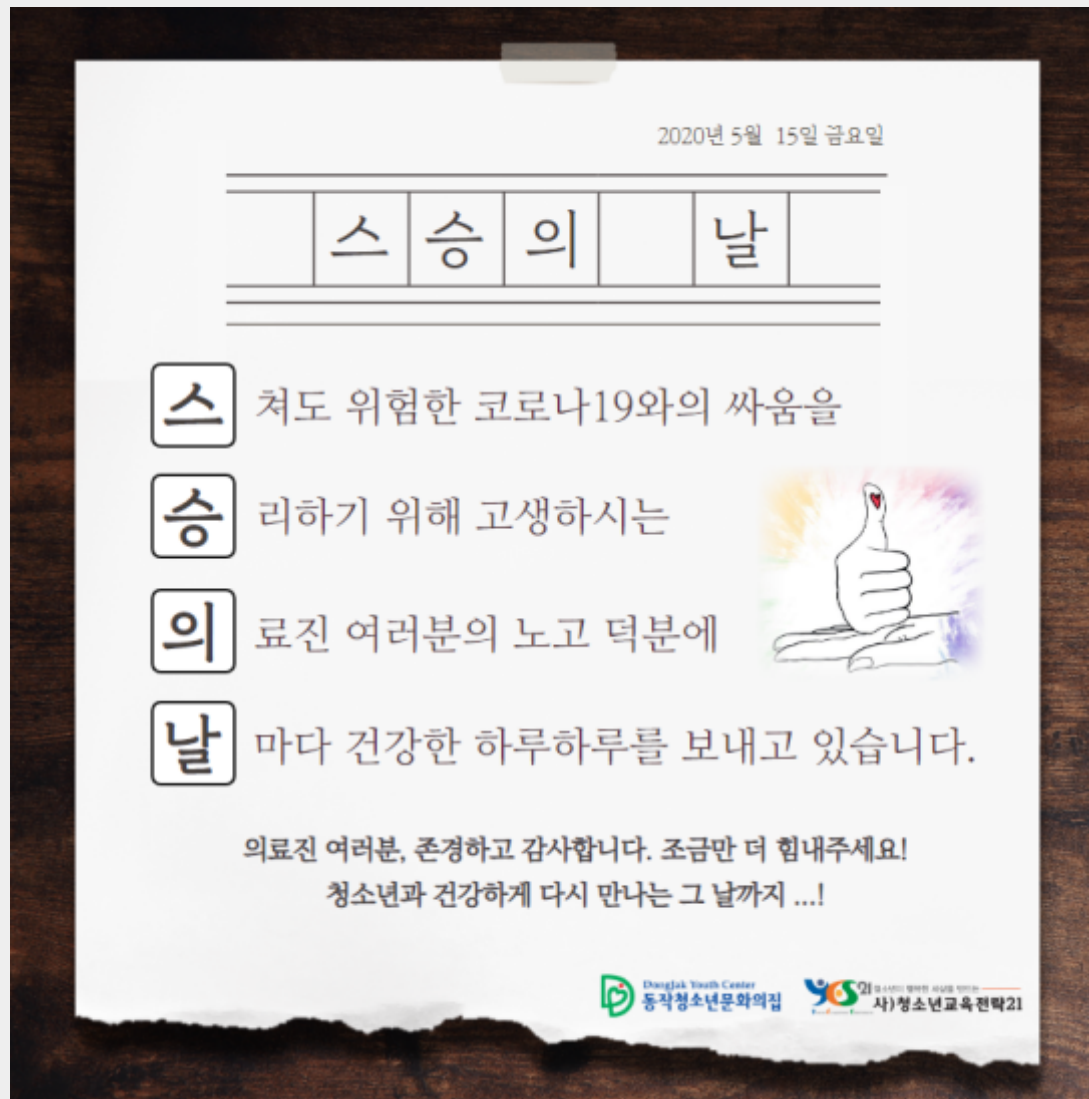
한 학생이 덕망 높은 스승의 집을 지날 때 늘 새벽까지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학생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뭐든지 알고 계시고 잘 가르치시는데 새벽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스승이 답하기를 “나도 늘 배우고 있단다.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마치 고여있는 물을 너희들이 마시는 것과 같지 않겠니. 흐르는 물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나도 늘 배워야 한단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은 결국 배움이고 옛말에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스승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 편지가 깜짝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을 늘 함께이지만 착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친구들이 깜짝 스승의 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는지

작년에는 동청문에게서 선생님들을 만나 스승의 날 이벤트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올해는 더 큰 이벤트로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청문에 직접 가지 못해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사실 청운위 친구들이 한자리에 한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받은 거라서 받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특히 다 만들었는데 새벽에 보낸 친구가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만나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코로나가 너무 밍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 보내줘 한 명도 빠짐없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선생님들 매번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작년 기관장 간담회 때 선생님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슈퍼맨, 배트맨, 어벤저스 나라를 지키는 영웅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지키는 선생님들은 저희 청소년들의 영웅입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고지혜 위원장

감동과 울컥함!! 고마움과 미안함!!

“우리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조만간 웃으면서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사)청소년교육전략21 덕분에 챌린지



사)청소년교육전략21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사)청소년교육전략21은 전국의 모든 의료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청소년교육전략21 덕분에 챌린지



도봉교육복지센터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진의 숭고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됩니다.

- ✔ New3R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활동사업비
- ✔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청소년 현물 및 물품제공
- ✔ 청소년 꿈 성장을 지원하는 Yes 장학금

이외에도 법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청소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세상 모든 청소년에게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오늘의 시작이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후원문의: 02-582-1318 또는 edus21@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782737-04-001439 (사)청소년교육전략

감은희 강시진 고태훈 공희진 곽은정 김경미 김미영 김미정 김보은 김산성 김성호 김세영 김소윤 김승옥 김승주
김영성 김영은 김영찬 김용재 김월수 김윤경 김윤나 김은주 김은지 김재윤 김지수 김지영 김창조 김춘호 김현애
김홍재 류은경 박글라라 박민아 박선미 박선숙 박성숙 박은실 박은화 박혜미 반시연 배성현 배재성 백민아 백민주
백준렬 변혜정 봉현석 서경민 서미경 서현주 성희경 소수연 손종규 손진희 송금심 송지은 신서윤 신현경 심묘락
심묘탁 심현준 안기운 양성식 양은일 여정훈 오민주 오장석 왕영선 원혜경 원혜준 유미란 유민정 유현수 유현희
유형근 유호근 윤율리안나 이건희 이경하 이미실 이미현 이민혁 이수정 이순복 이승희 이영복 이영수 이영주
이예지 이용은 이은숙 이주호 이창희 이현정 이현진 인태희 임복예 임선정 임채상 장미선 장성운 장재학 전동숙
전미경 정대현 정상구 정순임 정윤숙 정은희 정주영 정희진 조민아 조보람 조형훈 지혜연 진동현 진소정 진희정
차순철 최규석 최낙중 최남이 최숙자 최원희 최윤진 최은아 최정옥 최진선 최혜영 추정미 함지연 홍은지 황경예
황윤성 황지숙 황한나 BWHOLDINGS (주)더새로운환경 (주)더에이블 (주)삼인환경에너지 _후원자(기업) 명단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51 5층

02)582-1318 | edus21@hanmail.net | www.yes21.org

후원관련 안내는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